

써 더욱 더 실효를 거둘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러한 당면 현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수산청에서는 우선 어항법을 개정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어항 시설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어항사무소에서는 그 지침에 의거 매 분기 별로 어항 관리 관계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어항 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관리 인식을 제고시키는 등으로 시설과 병행하여 관리 운용 측면에서 많은 개선을 가져오게 하였다.

특히 금년도에는 주요 어항에 어항 감시 청원 경찰을 고정 배치하여 어항 시설의 무

단 점유, 훼손 등 불법 행위

가 없도록 함과 아울러 어항 환경 정화에도 최선을 다하여 어민과 함께 공영하는 보다 쾌적한 어항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와함께 올해의 항별 세부 집행 계획에서 설계, 계약 착공 등 3 단계 과정에서 태풍진로권 어항의 우선 설계와 조기 착공으로 태풍기 이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여 시공 중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나머지 주요 어항에 대하여는 수축, 보수 보강으로 구분, 예산 규모에 따른 공사 수행 기간을 감안하여 조기 착공 될 수 있도록 할 것이

다.

이밖에도 어항 공사 관리에 보다 노력을 경주하여 견실 시공이 되도록 현장 책임 기술자 간담회 등을 통한 기술 지도 감독에 정진하며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산업 재해 예방에 한층 더 힘 쓸 것이다.

그리고 시공 도중 또는 완공된 항에 대한 보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은 수시로 본청에 건의하여 어항 이용도 제고 및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일선 집행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㉔

西·海·漁·港·事·務·所

모항·홍원·말도·수품항 投資지속

豫算적지만 堅實施工에 最善

격포·서망항에 請願警察배치

李 雋 浩<水産廳 西海漁港事務所長>

최근

서해안 개발과 관련하여 이 지역 주민

들은 어항 개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어항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력과 여건이 이에 따라주지 못해서 해어항사무소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비해 성과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새로운 문민정부시대를 맞아 그동안의 부진을 떨치고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놀라운 성과가 있으리라 믿으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봉사 자세를 더욱 가다듬고 있다.

올해 서해어항사무소의 어항시설사업과 어항관리사업 방향은 크게 두 가지와 세 가지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어항 시설 사업 방향은 첫째, 서해안 거점항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로 어선의 안전 수용과 대피항으로서의 기능을 조속히 갖추도록 할 작정이다.

둘째, 노후 취약한 어항 기능을 적극 보강하여 어민의 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어항 투자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가장 효율적이고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어항 관리 사업 방향은 첫째, 어항 관리 상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쾌적한 어항유지를 위하여 계속 노력을 경주할 작정이다.

둘째, 어항관리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어항 관리에 효율을 기할 예정이다.

셋째, 주요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어항 관리 청원 경찰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관하여 올해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우선 격포항과 서망항에 1 명씩 2 명을 배치, 효용도를 점검한 뒤 해마다 증원 배치토록 할 작정이다.

한편, 올해 서해어항사무소의 어항 부문 예산은 모두 170억6,300만원으로 92년보다는 14억3,000만원 가량이 늘어났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올해 12개 어항에 대한 사업을 펼쳐 치려 하고는 있으나 모든 면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해어항사무소의 수

축 사업은 8개항에 모두 145억6,700만원이 책정됐다.

이를 좀더 상세히 살펴 보면 소흑산도항 방파제 상부 46m 건설에 40억원, 어청도항 서방파제 상부 30m와 하부 72m에 31억6,700만원, 격포항 남방파제 91m 건설에는 30억원, 안마항 남방파제 37m와 물양장 하부 160m, 두부 1식 건설에는 20억원, 모항항은 북방파제 79m 건설에 9억원, 이밖에도 흥원항 서방파제 30m에 5억원, 말도항 동방파제 10m, 작업장 20m, 기부보강 1식 등에 5억원, 수품항 방파제 20m, 작업장 1식 등에 5억원이 책정되어 각각 설계를 완료하고

'93년 어항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항 명	예 산
수축사업	계	12 개 항 17,063
	8 개 항	14,567
	소흑산도	4,000
	어 청 도	3,167
	격 포	3,000
	안 마	2,000
	모 항	900
	흥 원	500
유지보강	말 도	500
	수 품	500
	4 개 항	2,496
	외 연 도	1,000
	위 도	600
서 망	496	
계 마	400	

곧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투자예산에 비해 최대
 그런가 하면 유지 보강 사업 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견실
 에는 모두 24억9,600만원이 시공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
 책정됐는데 외연도항의 방과 출 작정이다. ㉔
 제 보강 등에 10억원, 위도항 서해어항사무소의 입장은
 북방파제 보강에 6억원, 서망 결코 넉넉한 예산이 되지 못

東·海·漁·港·事·務·所

안목·수산·오산·구산항 修築계속

維持補强사업으로 活用度 높여

일부 漁港 修築못해 아쉬움

元 康 喜<水産廳 東海漁港事務所長>

동해 어항사무소는 동해· 서해·남해 3개 어항 사무소 가운데서도 그 중요성 에 비해 그동안 다소 제 위치 를 찾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았 다.

예산 면이라든지, 인원 면에 서 여러모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있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동해어 항사무소의 직제가 서해나 남 해와 같이 4급 소장으로 승격

됨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부분은 어항 개발을 위해 투자할 곳은 많은 데 비해 예산이 제한돼 있어 지속적이면서도 계획성이 있 는 어항 개발을 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다.

이런 가운데서도 동해어항 사무소의 올해 사업중 특기할

만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처 음으로 청원 경찰 3명을 파견 했다는 점일 것이다.

예산을 비롯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다대포항, 방어 진항, 저동항 등 3개항에만 파견된 청원 경찰제도에 관한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면 점차 예산과 그 숫자를 늘려 나갈 작정이다.

올해 동해어항사무소가 사 업을 펼칠 어항은 모두 9개 항, 지난해 15개항에서 6개항